

데스크 시각

박진현



단란한 가정에서 자란 고등학생 프랭크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전학을 가게 된다. 새로운 학교로 등교한 첫 날, 반 학생들이 프랭크를 임시 불어교사로 착각하자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교사로 행세한다. 평소 프랑크 출신 어머니로부터 배운 불어 실력 때문에 이 '짜투리교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사기행각은 진짜 불어교사가 학교에 부임하면서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다. 평소 말주변이 좋기로 소문난 프랭크의 아버지는 학교 전체를 감쪽같은 속인 아들의 사기행각이 괴어왔다. 그래서 다시는 남을 속이지 못하도록 훈계한다. 그러나 어린 나이의 치기(稚氣)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희대의 사기꾼, 프랭크

프랭크의 귀여운(?) 사기행각은 여기까지였다. 16살이 되던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의 깨지자 프랭크는 돈만 있으면 다시 예전의 행복한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프랭크는

무작정 가솔, 남을 속이는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10대인 그가 생각했던 가장 빨리 돈을 버는 길은 수표를 위조하는 것이었다. 우연히 항공사 파일럿의 수표는 은행에서

'학력위조' 권하는 사회

별 의심없이 특별대우해준다는 것을 알고 파일럿이 되기로 마음 먹는다. 파일럿이 되려면 항공학교로 진학해야 하건만 프랭크는 곧장 항공사 유니폼 하나만으로 파일럿 변신에 성공한다. 진짜 뺑치는 파일럿 행세에 넘어간 은행 여직원의 손을 거쳐 프랭크의 위조 수표는 진짜로 통용되기 시작한다.

'위장의 위력'에 맞을 들인 프랭크의 사기 행각은 점점 대담해졌다. 대학 근처엔 얼선도 못한, 고졸 중퇴의 그가 하버드 의대 졸업장을 위조해 아동병원의 의사로 취직했다. 이후 프랭크는 20여 개국을 넘나들며 거짓과 위장을 일삼아 1969년 체포됐다.

지난 2003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의 줄거리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는 뜻의 이 영화는 1960년대 미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기꾼 프랭크 애버그네일 주니어의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그는 16~21살까지 5년 동안 미국과 유럽 20여개 국을 돌아다니며 25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수표를 납품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스크린 세상을 방불케 한다. 지난해 중순 광주발(發) 신장아 전 광주비행날

래 공동예술감독의 학위 위조사건이 터진 이후 이지영, 김옥량, 이창하, 윤석하, 장미희, 지광수님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인사들의 허위학력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술계를 시작으로 공연, 영화, 방송, 종교계까지 확산된 이번 사건은 가짜학력을 털어놓는 스타들의 고백행렬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내일은 또 누굴까'라는 공금증까지 나왔다.

이들 가짜학력 주인공들의 '커밍아웃' 모습도 다양하다. 개중에는 스스로 가방끈을 늘렸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반대로 주변에서 나서서 가방끈을 늘려줘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오

게 됐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유독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많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학력보다는 현장 경험을 중시한 이 분야의 풍토 때문이다.

간판 보단 실력 우선 돼야

그런데 이들 프로페셔널이 생활이 안정된 대학교수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긴 가방끈이 필요해졌다. 그동안 쌓은 경험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뿐,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증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았지만, 탄탄한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학력위조라는 유혹에 빠진 것이다. 이유가 어찌든 간에 죄의식 없이 학력을 뺑뺑이한 당사자들은 도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올 여름 우리 모두를 쏘몰보다 더 깊은 불쾌감에 빠뜨렸던 학력위조 도미노는 실력보다 간판을, 경험 보단 가방끈에 더 관심있는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학벌보다 능력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시스템이 뿌리내리지 않는 한, 제2 신장아 학력 위조사건은 언제든 생겨날 것이다. 근사한 파일럿 유니폼에 눈이 먼 은행 여직원의 실수가 세기의 사기꾼 프랭크를 키운 것처럼 말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시설

전남 농산물 연합물류 체계 도입 기대된다

전남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 운송 방식이 현재의 개별운송에서 연합물류체계로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농산물의 택배 및 운송을 물류 전문기업에 위탁해 공동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및 품질 향상 등으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된다.

전남도는 21일 물류전문기업인 CJ GLS(연합물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물류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31개 RPC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쌀 운송업무는 CJ GLS가 맡게 된다. 전남도는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민간 RPC와 과일, 채소류 등 다른 품목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쌀을 비롯한 전남 농산물은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타지역 농산물에 밀린 것이 사실

이다. 물류의 후진성 때문에 지역 농산물 최대 시장인 수도권 등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연합물류가 시행되면 물류비율이 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운송 서비스 여건이 개선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물류 전문기업의 참여로 RPC 등 생산자 단체의 경영 혁신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간 유통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역 농산물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연합물류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다. 운송비 원가 산정, 농산물 집배신 방식, 운송사고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은 연합물류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전남도와 생산자 단체는 지역 농산물의 연합물류체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사교육비 방치만 할 것인가

일반 가계의 사교육비가 해마다 25%씩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를 통해 초·중·고생의 가정이 개인교습과 입시·보습학원비 등으로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한달 평균 21만5천원으로 집계했다. 지난 1998년 10만4천원과 비교할 때 연평균 25%씩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천정부지다. 가구당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비의 65% 수준이며 월 평균 소비의 9.9%, 소득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9천381억~1조3천649억에 달한다. 공교육 부실에 따른 부담을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교육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사교육 참여가 구 비율은 1999년 66%, 2000년 76%, 2002년 83%, 2003년 85% 등으로 높아졌다. 학교수업만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외도 받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등의 불안감이 사교육

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도 심각하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사교육비가 하위 10% 가구의 4.8배에 달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상위계층은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학원 및 개인교습을 시키는데 비해 하위계층은 6가구가 그치는 등 소득과 소비에 비례했다.

사교육비 급증의 근본원인은 공교육의 부실에 있다.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해 학생들이 학원을 찾거나 개인교습을 받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다짐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기회마저 공평하지 못하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좌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때다.

無等鼓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우리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990년 2억2천620만에서 2001년 4억3천580만으로 192%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7억1천690만으로 1990년에 비해 무려 316.9% 늘어났다.

현재 우리는 온실가스 규제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으나 오는 2020년이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된다. 그때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 감축한 2억3600만톤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최저 28억2천320만달러에서 최고 277억1천82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의 0.3~3%에 이르는 결코 작지않은 규모다. 그럼에도 우리는 배출권거래시장이 없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사업화가 부진하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지난 해 기준 301억달러로 2005년보다 2.8배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에는 지난해의 5배에 달하는 1천5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있으며 안에 중국, 일본에도 설치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가 앞으로 탄소배출권 확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문제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검증, 거래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탄소은행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래도 발생한 탄소는 이를 흡수할 나무를 심거나 필요한 돈을 지불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우리 기업들도 탄소은행은 차치하고라도 탄소배출권에 대한 마인드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탄소 은행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옥영석



지난 달 한·EU FTA 2차 협상에서는 '동물복지'라는 생경한 단어가 화제에 올랐다.

당장 사람의 복지도 요원한 판에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러니 의아스럽기도 하거니와 은근한 반감마저 드는 말이다.

동물복지란 출산한 어미돼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교배시키고, 소·돼지 등을 도축할 때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쓰는 등 동물들에게도 행복하게 사육되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든 가족수송차량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해 수송과정에서 가족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 한다.

문제는 EU가 제시한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다면 생산비가 크게 뛰어 소비자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해서는 토지면적이 한우 2.3배, 산란계는 5.4배나 더 필요하다고 하며, 또 다른 조사에서는 동물복지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이 돼지는 최고 53%, 소고기가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고

신성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장자산에 대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홈쇼핑 및 FC 등을 통해 붐몰 터지듯 판매되고 있다. 왜 보장자산이 보험업계의 화두로 대두된 것일까?

가장(家長)에게 예측 못한 위험(死亡)이 발생할 경우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총액을 보장자산이라 하는 데 보장자산은 왜 필요할까?

한 가정의 가장의 소득이 끊어지면 가계 60%가 1년을 못 버틴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 262가정이 아빠를 잃는다고 한다. 1년으로 단

가죽 구성원 가운데 어느 누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불행에 빠질 우려가 높다.

보장자산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저축이 일시적인 사고에만 대처가 가능하면, 보장자산은 저축기능에다 보장기능까지 가능하게 가입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목표자금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고통화·고독화·고통화 등 이른바 3고 시대를 사는 가장이라면 자신이 사망하고 난 후 가족들의 가계유지를

가족사랑을 위한 보장자산 바로 알기

순 계산하면 약 95천명의 가장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한 가정당 유가족을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8만 명이 경제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고통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막내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그렇다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경우 급격한 비용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 일반가계의 보장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30~40대 가계의 필요 보장자산은 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준비된 보장자산은 1억원대로 3분의 1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준비된 보장자산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낮다.

이같은 통계를 보건대, 아무리 가정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성실히 저축했다라도 생계자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해 사망보장상품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장자산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이며 사랑이다.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자산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장자산을 준비할 때는 첫째,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장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필요한 보험금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재해는 물론 각종 성인 병과 질병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장 가치를 전달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장이어야 한다.

충분한 보장자산을 확보하는 것만이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지역 축제는 보다 '농촌스러워야' 성공한다

최근 경남 함양군 안의면 응추계곡에 애안곤충 농원에 다녀왔다.

우리에게 익숙한 토종 장수풍뎠이와 사슴벌레를 비롯, 호랑나비와 각종 나비들, 매미·땅강아지·전갈 등 무려 500여종의 곤충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축제라고 생각한다. 이 축제를 다녀간 도시민들도 수십 만명이라고 한다.

함양의 나비 축제도 유명한 관광상품이 된 지 오래다.

'농촌스러움' 아이디어가 담긴 행사는 얼마든지 도시인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

해당 지역의 특성, 문화 유적, 향토사 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미를 부여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뤄진 행사가 인기 있었다는 이유로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관광객들이 해의 뿐 아니라 농촌 지역도 찾아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독특한, 아가자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길 밖에 없다. ▲이대은·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교생 흡연을 심각... 유치원때부터 '금연 교육' 절실

고 3 남학생의 흡연율이 40%를 넘고, 여학생은 10%에 육박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신체는 한창 자라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손상을 입고 청소년 시기부터 흡연을 한 사람들은 니코틴에 의한 중독이 심각하고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담배를 늦게 배운 사람보다 금연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청소년의 금연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담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게 효과적이다.

아이들한테 일종의 심리적인 예방접종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릴적 기억을 살려 훗날 청소년기에 담배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힘을 미리 갖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유치원 아이들에 맞는 교육 내용을 개발해서 유치원에 무료로 자료를 배포하고,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담배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 좋겠다.

▲이준호·광주시 북구 운정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사업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